

육아정책 소식

부모급여 인상: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급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였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번 인상으로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윈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


2024년부터 늘봄학교가 전국에 본격 도입되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이다. 2024년 1학기에는 2,700개 늘봄학교가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관내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10% 이하로 참여한 곳이 1곳(서울), 10~20% 참여한 곳이 2곳(울산, 전북), 20~30% 참여한 곳이 4곳(인천, 광주, 강원, 충남)이며,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 이상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100%)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등 지역별 참여율 차이가 크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명단은 교육부 누리집 (<http://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실시

보건복지부는 3월 4일(월)부터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단시간의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이다. 그간 독립반만 운영하여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통합반이 운영됨에 따라 부모와 아동은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린이집은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 시간제보육 운영기준 〉

구분	독립반	통합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보육반 -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별도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교사 대 아동비율(0세반 1:3, 1세반 1:5 등) 준수 
운영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금 9:00~18:00, 시간 단위 예약·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금 9:00~16:00, 시간대별 예약·이용 ① 오전 9:00~12:00, ② 오후 13:00~16:00, ③ 종일 9:00~16:00
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6~36개월 미만 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2세반 영아
지원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이용시간 합산)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당 5천원(부모부담 2천원) 	
지원 기관	850개반('24년 예산 기준)	1,465개반('24년 예산 기준)

아빠 필독서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 가이드」 7차 개정판 배포

보건복지부는 육아 정보와 연령별 발달 정보 등이 담긴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개정판(7판)을 배포하였다. 육아가이드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교수 아동청소년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임신 전 준비사항부터 ▲남편과 아빠로서 알아야 할 아이의 연령별 발달 정보 ▲위급상황 시 대처법 ▲수면교육 ▲아빠표 놀이법 및 ▲이유식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번 개정판은 달래지지 않는 아이의 떼쓰기, 아이의 스마트폰 노출 등 초보 아빠들이 많이 고민하는 육아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양육을 위한 TIP(주요내용 소개 ☞붙임2 참조)’ 코너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지난 9월에 진행된 ‘최충우돌 아빠들의 육아일기 쓰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도 5편 수록하였다.

개정판 책자는 임신 출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배부(6,000부)할 계획이며,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배너)를 통해 책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3,000부 한정, 소진 시 신청마감). 또한 온라인으로 자료를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표 누리집에 게재한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올해부터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자격이 대폭 확대되었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졌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포털(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사업 도입

보건복지부는 매년 어린이집이 2천여 개소씩 감소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우선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4년 총 54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며(2024년 예산 416.5억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매입방식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435개소)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부족할 경우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 이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영아반을 유지·개설하여,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024년 영아반 인센티브 사업 개요 〉

- (문제점) '24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보육료(234만 원)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245만 원) 지급이 어려움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영아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인센티브(보조금 형태) 지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영아반 인센티브)
- (지원금액) ('24년) 국비 79,612백만 원 (+79,612백만 원, 순증)
 - (0세반(정원 3명)) ('23) 無 → ('24) 현원 2명 시, 62.9만 원 추가 지원
 - (1세반(정원 5명)) ('23) 無 → ('24) 현원 3명 시, 68.4만 원 추가 지원
현원 4명 시, 34.2만 원 추가 지원
 - (2세반(정원 7명)) ('23) 無 → ('24) 현원 4명 시, 69.6만 원 추가 지원
현원 5명 시, 46.4만 원 추가 지원
현원 6명 시, 23.2만 원 추가 지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일·가정 균형 환경 조성으로 돌봄 지원 정책 강화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돌봄 지원을 강화하였다(그림 참조).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으며,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이용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되었고, 대상 자녀 연령기준 또한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지원금액은 월 21만원으로 인상되었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이 완화되었다. 이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확충되고, 저소득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되는 등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이 확대되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 정책

		2023년	2024년																																						
아이 돌봄	정부지원	✔ 8.5만 가구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소득기준 (중위소득)</th> <th colspan="2">정부지원비율</th> </tr> <tr> <th></th> <th></th> <th>0-5세</th> <th>6-12세</th> </tr> </thead> <tbody> <tr> <td>☞형</td> <td>75% 이하</td> <td>85%</td> <td>75%</td> </tr> <tr> <td>☞형</td> <td>120% 이하</td> <td>60%</td> <td>20%</td> </tr> <tr> <td>☞형</td> <td>150% 이하</td> <td>15%</td> <td>15%</td> </tr> </tbody> </table>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형	75% 이하	85%	75%	☞형	120% 이하	60%	20%	☞형	150% 이하	15%	15%	✔ 11만 가구 지원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정부지원비율</th> </tr> <tr> <th>1자녀</th> <th>2자녀 이상</th> <th>청소년(한)부모 (0-18세)</th> </tr> </thead> <tbody> <tr> <td>0-5세</td> <td>6-12세</td> <td></td> </tr> <tr> <td>85%</td> <td>75%</td> <td></td> </tr> <tr> <td>60%</td> <td>30%</td> <td>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td> </tr> <tr> <td>20%</td> <td>15%</td> <td>90%</td> </tr> </tbody> </table>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이상	청소년(한)부모 (0-18세)	0-5세	6-12세		85%	75%		60%	30%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20%	15%	90%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형	75% 이하	85%	75%																																						
☞형	120% 이하	60%	20%																																						
☞형	150% 이하	15%	15%																																						
정부지원비율																																									
1자녀	2자녀 이상	청소년(한)부모 (0-18세)																																							
0-5세	6-12세																																								
85%	75%																																								
60%	30%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20%	15%	90%																																							
	운영방식	✔ 4시간 전 신청 ✔ 최소 이용시간 2시간	✔ 긴급 돌봄(2시간 전 신청) 🕒 ✔ 단시간 돌봄(1시간만 이용) 🕒																																						
가족 친화	최고기업	✔ 22개 최고기업	✔ 70개 최고기업 🏢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 중위 60% 이하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중위 63% 이하 (고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월 21만원 (0-1세, 청소년한부모 월 40만원)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매입임대주택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 소득무관 (24세 이하 위기임산부) ✔ 매입임대주택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																																						

다문화 가족	기초학습· 진로설계	☉ 기초학습 138개소, 초등 저학년 ☉ 진로설계 113개소	☉ 기초학습 168개소, 초등 전학년 ☉ 진로설계 143개소
	이중언어	☉ 부모코칭 위주, 12세 이하 자녀	☉ 자녀 교육 강화, 18세 이하 자녀
	교육활동비	—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7~18세) 연 40~60만원 지원 (신청)
지역 사회 기반 돌봄	공동육아 나눔터	☉ 395개소	☉ 435개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350개소	☉ 355개소

여성가족부 | 언제나 든든한 가족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올해부터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비용은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을 지원하는 데 이어, 임차비까지 확대되었다.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전자책 발간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가 발간되었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복지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작되었으며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안내서는 실물 소책자, 전단지 형태로도 제작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에도 배포되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